

2007년도 우리나라의 예산과 정책방향

Our Nation's Budget and Policy Direction in 2007

2007년도 우리나라의 예산과 정책을 살펴보아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나아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자료는 기획예산처 발행 2007년 정부예산(안)을 참고 하였다.

□ 글 : 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회
 □ 자료정리 : 박무일(건설안전기술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 재정규모 및 수지

(1) 성장전망

2007년도의 경상성장률은 6.7%, 실질성장률은 4.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06년의 경우 하반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었으나 상반기의 높은 성장세에 의거하여 연간 5%의 실질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07년은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세입전망

2007년도의 총수입은 '06년 예산 대비 7.0% 증가한 251.8조원으로 하고 있다. 국세수입은 금년 세입이 당초 전망보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06년 당초예산 대비 9.4%이나 전망대비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원)

	'06예산	'07예산안	증감률(%)
◆ 총 수입	235.3	251.8	7.0
○예산(국세)	155.8 (135.3)	167.3 (148.1)	7.4 (9.4)
○기금(사회보장수입)	79.5 (41.2)	84.4 (44.5)	6.2 (8.2)

(3) 지출규모

2007년도 총지출은 '06년 추경예산 대비 6.4% 증가한 238.5조원으로 하고 있다.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소요를 중심으로 예산 7.2%, 기금 4.9% 증가를 고려한 규모이다.

(조원)

	'06예산'	'07예산안	증감률(%)
◆ 총 지출 ¹⁾	224.1	238.5	6.4
○예산(일반회계 총계)	153.7 (148.9)	164.7 (158.0)	7.2 (6.1)
○기금(사회보장지출)	70.4 (15.2)	73.8 (17.5)	4.9 (15.8)

- 1)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 및 채무원금상환(보전지출)을 제외
- 2) 이하 '06예산은 추경예산 기준

(4)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5% 흑자이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GDP대비 △1.5%로 적자를 전망하고 있다. '07년 국가채무비율은 금년과 동일한 33.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국제발행 규모는 금년보다 줄어든 8.7조원으로 하고 있다.

	(조원)	
	06예산	07예산안
■ 통합재정수지(GDP대비, %)	Δ0.9 (Δ0.1) ¹⁾	13.3 (1.5)
■ 관리대상수지(GDP대비, %)	Δ14.9 (Δ1.7)	Δ13.7 (Δ1.5)
■ 국가채무 (GDP대비, %)	283.5 (33.4)	302.9 (33.4)
■ 일반회계 국채	9.3	8.7

1) 재해추경(2.2조원) 으로 적자가 되었으나 결산 시 흑자 전환 가능성

2. 2007년도 자원배분의 중점 내용

(1)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중점 지원 사항

1)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등 R&D 투자 확충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IT·BT 등 전문분야의 고급인재 및 산업인력 양성에 지원한다.

2)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사회안전망 확충과 계층 간 이동성 제고 등 양극화를 해소하며 육아부담 완화,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복지, 교육, 문화 분야 등의 사회서비스 확충에 지원 한다.

3) 국가안전 확보

국방개혁, 해경 전력증강, 재해예방 투자 강화 등에 지원한다.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안)

	(조원)		
	06	07(안)	증가율
■ R&D	8.9	9.8	10.5
■ 사회복지·보건	56.0	61.8	10.4
■ 교육	28.8	30.9	7.4
■ 국방(일반회계)	22.5	24.7	9.7

(2)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투자 내실화

1) SOC 분야는 민간자본 및 공기업 자체자금 활용 등 투자재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투자를 보완하고

2) 농어촌분야는 132조원 투융자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3)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술개발·에너지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3)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추진

1) 재정사업 자율평가(PART) 결과 미흡사업은 10%이상 삭감

* 미흡사업(42개) 예산 반영 현황 : '06) 0.9 → '07) 0.4조원

2) 업무추진비·여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행정경비 최소화

3) 복지분야도 규모 증가에 상응하는 제도개선 노력 병행

* 의료급여 제도개선, 건강보험공단 지원방식 개선 등

4) BTL(민간자본유치사업) 본격 추진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극 활용

5) 평가결과, 세출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건교부 등 10개)는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기본경비 3~4%, 총93억 원)

'07예산안 세출구조조정 실적

	(조원)	
	06예산	07예산안
■ 구조조정 대상지출	44.8	47.4
■ 구조조정 실적	Δ 4.2	Δ 4.6
■ 구조조정률(%)	9.3	9.7

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일반 및 특별회계, 공공부분에는 민자 및 공기업 투자 포함)

(단위 조원, %)

구분	'06	'07안	증감액	증감률(%)
(1) R&D	8.9	9.8	0.9	10.5
(2) 교육	28.8	30.9	2.1	7.4
(3) 사회복지·보건	56.0	61.8	5.8	10.4
(4) 수송·교통·지역개발	18.4	18.2	△ 0.2	△ 1.1
(06 재해추경 제외)	(17.8)		(0.4)	(2.6)
(공공부문 건설투자)	(48.7)	(52.3)	(3.6)	(7.4)
(5) 농림·해양수산	15.5	15.9	0.4	2.7
(6) 산업·중소기업	12.4	12.5	0.1	0.9
(금융지원 제외)	(8.4)	(9.1)	(0.7)	(7.4)
(7) 환경	3.8	4.0	0.2	6.4
(8) 국 방(일반회계)	22.5	24.7	2.2	9.7
(9) 문화·관광	2.8	2.9	0.1	2.6
(10) 공공질서·안전	11.0	10.9	△ 0.1	△ 1.3
(06 재해추경 제외)	(10.2)		(0.7)	(7.0)
(11) 통일·외교	2.5	2.4	△ 0.1	△ 4.0
(경수로서업 제외)	(2.3)		(0.1)	(4.3)
(12) 균형발전(균특)	6.3	6.7	0.4	6.3
(13) 정보화 및 통신	7.6	7.8	0.2	2.6

4.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1) 연구개발

1)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 '06년 8.9조원 → '07년 9.8조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

성과평가와 자원배분간의 연계강화, 부처 간 중복사업 조정 등 투자효율성 제고에도 역점을 둔다.

2)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

를 확충한다.

기초과학학술연구조성에 전년도 보다 1,705 → 1,805억 원, 특정기초연구 821 → 960억 원 등 신기술 창출의 기반이 되는 기초분야 연구를 확대하며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2,900억 원) 등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할 창조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한다.

3) 미래 성장 동력의 확충과 직결되는 핵심기술 분야에 지원을 확대한다.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유망기술 분야 중점 지원하며 핵심부품·소재개발(2,520 → 2,691억 원)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4)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한다.

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방, 방재, 보건, 환경 등 공공·복지기술 분야 투자 확충

* 국방 R&D '06년 10,618 → '07년 12,902억 원 (21.5% 증)

* 방재 R&D '06년 407 → '07년 572억 원 (40.5% 증)

5)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R&D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596 → 1,995억 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461 → 803억 원 등 기술혁신을 선도할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지방기술 혁신 335 → 510억 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조성 393 → 542억 원 등 지방대학·중소기업·연구소간의 협력연구를 활성화 한다.

* 지방R&D 비중 '03년 27% → '06년 36% → '07(안) 40%

(억 원)

구 분	06	07인	비 교
■ 국책연구개발	50,218	56,817	· 부품소재개발(산자부, 2,520→2,691) 등
■ 연구기관지원	20,122	21,756	· 출연연 지원(과기부, 10,111→11,252) 등
■ 대학연구지원	12,328	12,958	· 기초과학기술연구조성(교육부, 1,705→1,805) 등
■ 연구기반조성 등	6,428	6,912	· 대학R&D특구육성(과기부, 250→500) 등
R&D 분야 계	89,096	98,443	10.5% 증
(예 산)	72,283	81,274	12.4% 증
(기 금)	16,813	17,169	2.1% 증

(2) 교육

1)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의 역량강화에 지원한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및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해 제2단계 BK21 사업을 추진('06~'12년, 매년 2,900억 원)하고,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하고, 국립한의대를 설치하며,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대학특성화사업(NURI, '07년 2,594억 원)을 추진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2)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확충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1,490 → 2,189억 원)하고, 전문대 근로 장학금(Work-Study)을 지원(100억 원)하며 사교육 수요의 학교 내 흡수 및 소득계층 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학교 지원(신규 1,017억 원)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142 → 152천명) 등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특수교육보조원(2,521 → 4,000명), 장애학생 도우미(768 → 2,000명) 등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3) 초중등 교육여건 개선 및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한다.

'07년은 현행 교부율 수준을 유지하되, 국고에서 방과 후 학교사업 신규 지원하며, '08년부터 방과 후 학교·유아교육 사업의 지방이양과 함께 지방 교육재정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도세 전입금 비율은 현행 유지하되, 광역·기초 단체장이 교육지원 사업을 직접 시행 또는 보조가능토록 개정한다.

성인 문해(文解)교육(175 → 240개소), 주말교육과정 등 소외계층·재직자 평생교육의 지원을 확대하며,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전문대학을 중추적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대 특성화를 지원(1,680억 원)한다.

4) 동북아 지역 역사 및 독도 관련 연구 및 홍보·교육 등을 위하여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운영을 지원(128 → 200억 원)한다.

(3) 사회복지·보건

1)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기초생보 대상자 확대 및 차 상위계층 노인·장애인 지원을 강화하며, 의료급여 지원은 확대하되 과다이용자(500일 이상 28만 명) 심사강화를 통한 적정이용 유도하고, 장애인 LPG 지원제도를 개선, 장애수당 지급대상(30 → 51만 명) 및 지원 수준을 인상(7 → 13만원)한다.

* 노인 돌보미 바우처,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등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본격 추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전체아동의 50 → 70%) 등 보육·육아 예산 확충하며,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기본보조금 시범 실시('06.9

월 시범사업 시작, '08년 본격 추진)하고, 노인치매병원 건립(6 → 10개소), 요양시설 확충(신축 137개소) 등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다.

3)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및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가사·간병,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며, 민간의 사회서비스업 참여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지원법 제정 추진 및 기업 연계형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대학 및 실업계고교 취업지원 강화 등 고용안정 인프라를 지속 확대한다.

* 지역아동센터 지원(902 → 1,800개소),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등

4) 무주택 빈곤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한다.

빈곤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 확대하며,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5) 보건의료 예방투자 및 저소득 의료지원 확대

'07년 하반기부터 민간병원 무료예방접종 실시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 지원을 확대하고, 5대 암 조기검진(300 → 375만 명) 및 저소득 암환자 지원 확대한다.

6)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선 및 의료비 절감 방안을 추진한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고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의약품 선별 등재시스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 (현행) 지역가입자 급여비 50% → (개선) 전체 보험료 수입 20%

7)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지원 확대, 수당의 인상 등

* 무공영예 수당 1만원 인상 (월 11 → 12만원)

(4)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1) 전체 공공부문 건설투자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7%대 증가

재정투자는 낙후지역 및 기존공사 완공 지원에 주력하고, 민자 유치 활성화 및 공기업 자체 투자 확대 등 투자재원의 다변화를 통해 수송 교통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2) 도로부문은 교통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으로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사 중인 일반국도 사업의 적기 완공을 지원하며, 동계올림픽, 여수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ABS발행(1조원)을 통해 적정 투자 규모를 유지하고 민자 사업 지원(1.1 → 1.3조원)을 지속 확대한다.

* 김천-현풍 고속도로, 익산-장수 고속도로 등 4건의 고속도로 완공

3) 철도부문은 국토균형발전, 수송효율성을 감안 지속 투자한다.

경부고속철도 부산-대구 구간은 '10년 완공, 호남고속철도는 본격적 기본설계 소요를 지원하며, 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4) 동북아 경제중심 및 국가균형발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다.

부산신항·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배후부지·도로 등 기반시설 중점 지원 및 인천공항 2단계 '08년 완공을 추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

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며, '08년 완공예정이
 었던 김해·무안공항을 '07년에 조기 완공한다.

한을 3년 연장한다.

교통세의 활용범위를 에너지·환경 분야로

5) 교통시설 투자재원 확보 위해 교통세 과세시 확대

(억 원)

구 분	'06	'07인	비 고
■ 도로	73,567	73,345	· 일반국도 건설(6,759→7,485억 원)
■ 철도	32,941	34,342	· 광역철도 건설(4,401→5,093억 원)
■ 도시철도	12,953	12,570	· 지하철 경영개선지원(5,370→6,329억 원)
■ 해운·항만	19,402	20,471	· 부산신항·광양항 개발(7,323→7,995억 원)
■ 항공·공항	3,918	3,335	· 김해·무안공항(242→939억 원)
■ 물류 등	10,081	11,376	·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2,307→2,359억 원)
■ 지역개발	31,374	26,792	· 수자원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	184,235	182,231	△ 1.1%
('06 재해추경 제외시)	(177,535)		(2.6% 증)

(5) 농림·해양·수산

1)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활
 력 증진에 지원한다.

* 132조원 투융자 계획 : 농업·농촌 119조원,
 수산업·어촌 13조원

2) 한미 FTA 협상 등 개방 대응 농정체계를 강
 화한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등 농어촌 사회 안정에 최우선 중
 점 지원

* 쌀 소득직불 금(1.6 → 2.0조원), 영유아자녀
 양육비(157 → 201억 원) 등

부채농가 농지매입을 통해 경영회생 지원 확
 대(422 → 566억 원)

농업신용보증기금 정상화를 위해 출연 확대
 (5,780 → 6,869억 원)

* 금융기관 출연 확대, 보증수수료를 인상 등
 자구노력 병행

쌀·과수·원예작물 고품질·브랜드화 지원

(신규 177억 원)

3) 도농상생 복합생활공간 조성으로 농어촌 활
 력화에 지원한다.

일부 중복·분산된 농어촌개발 사업을 효율적
 종합적인 지역개발로 추진

* 신 활력사업(1,882억 원), 오지개발사업
 (1,134억 원) 등을 농림부로 통합

1사1촌 운동 등 농촌교류 활성화 및 은퇴 도
 시민의 농촌 유치프로그램(신규 45억 원)을
 지원

4)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중점 지원한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확
 대(734 → 1,294억 원)하고, 어업 외의 소득증대
 를 위해 어촌관광개발(221 → 445억 원)에 적극
 지원한다.

5)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 및 농업 연구개발에
 지원한다.

숲 가꾸기(1,584 → 2,069억 원) 등 산림 자원

화를 촉진하고, 도시 숲 조성 등 산림의 휴양기능을 제고하고, 농업생명공학 등 기술연구 개발 및 현장화에 적극 지원한다.

6) 농림어업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재해 예방효과가 큰 사방댐 확대(575 → 987억 원, 203 → 400개), 수리시설 개보수(3,500억 원)에 지원을 강화

(6) 산업·중소기업

1)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부문에 집중 투자하며 민간부분의 역할을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구조조정, 창업지원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금융지원은 시장 친화적 제도개선과 함께 창업·기술개발기업 지원 등 민간금융 활용이 어려운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 창업·기술개발·사업구조전환자금('06) 4,880 → ('07안)8,400억 원

2) 혁신주도형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선진경제 조기 구축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R&D 투자 대폭 확대(2,679 → 3,600억 원)하고,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2,520 → 2,691억 원)에 지원을 확대한다.

* 부품소재수출 비중(%)을 ('06) 45 → ('10) 50

3) 지역별 산업·경제여건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

부산·전남·대전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

4)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의 정착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에 역점을 둔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및 자발적협약(VA)기업 등에 대한 지원(4,438 → 4,674억 원)을 확대하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해외 유전개발 투자(1,645 → 3,547억 원)와 석유비축(3,115 → 3,657억 원) 지원을 확대하며,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미래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부문의 기술개발에 중점 지원한다.

(7) 환경

1) 하수처리 시설 확충 및 상수원 수질개선 지속 지원

하수관거 보급을 확대하고,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142 → 1,359억 원)하고, 주요 상수원인 다목적댐 수질의 근원적 개선을 위해 댐 상류 지역 하수처리 시설 설치 지원(740 → 1,329억 원)한다.

2)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부문 투자 확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차량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투자 확대(2,081 → 2,640억 원)하고, 황사·악취·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지속 지원한다.

(억 원)

구분	'06	'07안	비교
■ 상수도	25,174	26,457	·하수처리장설치(5,194→5,361) 등
■ 대기	3,295	3,698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2,081→2,640) 등
■ 폐기물	2,761	2,73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0→27) 등
■ 자연	1,593	1,940	·생태계 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103→118) 등
■ 해양 등 기타	5,106	5,507	·연안관리(13→23) 등
환경보호 분야 계	37,927	40,337	6.4% 증
(예산)	30,494	32,633	7.0% 증
(기금)	7,433	7,704	3.6% 증

3) 자연보전, 환경보전 및 폐기물 재활용 기반 강화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공원 탐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어린이 등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마련(신규 29억 원) 등 환경보전대책을 강화하며, 폐기물 재활용 강화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촉진한다.

(8) 국방

- 1) 국방비는 국방개혁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9.7% 증가 한다.
- 2) 전력투자 확대로 병력위주 군 구조를 첨단 기술군으로 개편하며, F-15K급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핵심전력 신규추진, KIA1전차, KDX-Ⅲ(이지스함) 및 T-50(고등훈련기) 등 지속 투자
- 3) 장병사기진작과 병영기초생활 개선사업을 중점 반영하고, 사병봉급을 지속적으로 현실화, 병영생활관은 침상형(0.7평/인)에서 침대형(2.0평/인)으로 지속적 개선, 군 의무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장비·물자·시설 확충)
- 4) 수리부속 등 필수 지출경비를 차질 없이 지원한다.

(9) 문화·관광

- 1) 국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예술 단체지원(278 → 295억 원) 및 문화시설 확충·운영(189 → 254억 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
- 2) 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확충
문화콘텐츠 진흥, 기술개발·전문 인력양성 등 문화산업 육성 및 인프라를 구축(1,360 → 2,254

억 원)하며,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재정지원 확대하고, 방송영상·출판 산업육성 등 문화미디어산업 육성(572 → 880억 원)한다.

3) 관광·스포츠 인프라 확대 및 문화재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해외관광객 유치(778 → 1,052억 원) 및 지방체육시설을 확충(515 → 790억 원)하고, 무형문화재 보호관리(87 → 104억 원) 및 문화재 복원을 지원(201 → 282억 원)한다.

(10) 공공질서 및 안전

- 1) 사법서비스 혁신 및 경제적·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선변호확대,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 지원(350 → 790억 원)
법률구조(232 → 254억 원), 재소자 수용환경 개선(1,109 → 1,190억 원) 등
- 2) 효율적인 민생치안에 지원한다.
과학수사 장비확충(94 → 97억 원) 교도소 무인경비시스템(100 → 200억 원) 무인교통단속 장비운영(783 → 818억 원) 등
- 3) 독도경비 및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 전력을 증강한다.
대형함정 도입 확대(10년 까지 30 → 33척, 562 → 1,003억 원), 함정속력·무장 보강, Dry Dock 신축(07~09, 347억 원) 등
- 4) 재해관련 사전예방·항구복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1,165 → 1,282억 원) 및 수해에 취약한 소하천 정비사업(497 → 593억 원) 지원 등
- 1)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투자를 강화하여 인

명·재산 피해 최소화

- 댐건설·하천정비 등 수계치수사업에 대한 지속 투자
홍수조절 효과가 큰 다목적댐 건설 지원 확대, 하천개수율이 낮은 지방하천·지방소하천에 대한 지원 강화
- 농림어업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산사태 예방 효과가 높은 사방댐 건설 대폭

확대(203 → 400개),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 재해예방 강화

-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 예·경보 기능 강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20 → 208개소) 등 재해관련 사전, 예방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기상관측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재난 예·경보 기능 강화

[참고] 재해예방 투자 내역

(억 원)

구분	'06	'07안	비고
■ 하천·댐 분야	14,851	17,794	· 다목적댐건설(2,042→2,233) · 지방하천 치수(3,280→3,452) · 수해상습지 개선(2,500→3,385)
■ 농업·산림·어업 분야	15,149	15,238	· 사방사업(575→987) · 수리시설 개·보수(3,454→3,500)
■ 방재·기상 분야	3,688	4,119	· 재해위험지구 정비(1,165→1,282) · 기상장비현대화(208→361)

(11) 통일·안보

1) 남북경협과 한반도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북 사업 지원규모의 적정수준 유지

일반회계 출연금은 '06년 수준을 유지(6,500억 원)하고, 쌀·비료 등 지원 사업의 경우 금년 수준을 유지하며(식량 50만 톤, 비료 35만 톤), 개성공단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종합 지원센터 건설 등을 지원한다.

* 남북협력기금은 경수로사업 종료('06년, 2,041억 원) 등으로 사업규모 축소

2) 우리의 경제력 규모에 상응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국제기구분담금 체납금을 '08년까지 조기 해소(1,567 → 2,300억 원),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한다.

* GNI대비 ODA 규모 : ('06) 0.08% → ('07안) 0.09%

3) 국민편익 증진 및 재외국민 보호활동 강화

여권발급 경비 증액(365 → 661억 원)으로 대국민서비스 적극 개선하며,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 및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 지원한다.

(12) 국가균형발전

1) '07년 국가균형특별회계는 지자체 역할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둔다.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을 대폭 확대(2.8 → 4.5조 원)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발전사업 위주로 중점 지원하며, 세출구조조정,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113 → 300억 원)하고, 지역전략산업 진흥 등 혁신계정 사업은 내실화를 기한다.

2) 제주계정을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적극 지원한다.

제주지역 국고보조사업, 7개 특별행정기관 및

자치경찰 이체, 인건비를 지원(3,500억 원 수준)

3)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사업을 통해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개선 추진한다.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요자원 실태조사 및 DB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13) 정보화 및 통신

1) 지능기반사회(u-Korea) 실현을 위한 IT 신 성장동력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에 대한 지원 강화한다.

송도 u-IT허브, 누리꿈 스퀘어(서울 상암동) 등 동북아 IT허브 기반 조성 지원(1,171 → 1,320억

원)하며, u-City 및 u-Defense 등 범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신규, 103억 원)한다.

2)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고PC 및 장애인용 보조기기 보급 사업 지원 확대(62 → 72억 원)하며, 해킹·바이러스 대응, 인터넷 중독 예방 등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강화(143 → 172억 원)한다.

3) 통신사업 특별회계를 우편사업 및 우체국 예금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한다.

(억 원)

구분	'06	'07안	비고
■ IT산업경쟁력강화	14,809	13,987	· 송도 u-IT허브(371-920), u-City(신규53)
■ 전자정부 구현	9,165	9,699	· 전자정부 지원(2,757-2,907), 지방행정정보화(236-325)
■ 국민생활정보화	9,492	9,897	·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신규83)
■ 정보화 역기능 완화	949	978	· 정보화마을(62-67), 개인정보보호(34-56)
■ 우정부문	41,715	43,515	· 국제우편(948-1,051)
정보화 및 통신 분야	76,130	78,076	2.6% 증
(예 산)	65,257	65,864	0.9% 증
(기 금)	10,873	12,212	12.3% 증

[참고] 2007년도 BTL(민간자본유치사업)대상시설별 한도액

16개 사업 분야 9.9조원 규모의 사업실시

(단위 : 억 원)

대상시설	사업규모	(추정)총사업비	대상시설	사업규모	(추정)총사업비
1) 국가사업			⑨ 생활체육시설	1개소	187
① 군인 아파트 및 독신자숙소	3,230세대, 870실	3,469	⑩ 도서관	2개소	115
② 사병대무반	육군 15대대, 해·공군 30동	1,924	⑪ 복합 문화시설	1개소	620
③ 일반철도	2개 노선 134km	51,977	⑫ 노인의료복지시설	1개소	150
④ 국립대학교 시설	2개교	3,324	⑬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	571
⑤ 기능대학 시설	10개교	707	⑭ 복합 노인복지시설	1개소	182
⑥ 군 정보통신망	광케이블 3,412km	2,595	⑮ 과학관	1개소	227
⑦ 재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178개 시군구	2,109	소 계		15,122
소 계		66,105	3) 예비사업 한도액		4,061
2)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4) 지자체 자체사업		14,000
⑧ 노후 하수관거 정비	1,539km	13,070	합 계		99,288

[참고]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로 예산 6.9%, 기금 5.1% 증가

1. 중기 재정운용 여건

(1) 경제성장

- 1) 세계경제는 '06~'10년 중 3%대의 실질성장 예상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등 글로벌 불균형 심화, 국제금리 인상, 유가의 추가적 상승 등 불안요인은 상존할 것임
- 2) 국내경제는 연평균 4%(경상 7% 초반)의 실질성장 전망
- 3) '06년은 하반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상반기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연간 5%의 실질 성장 가능
- 4) '07년은 세계경제 둔화,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당초 전망보다 다소 낮은 4.6% 성장 전망
- 5) '08년 이후는 잠재성장률 수준(4%대 후반)으로 수렴 전망

(2) 총수입

- 1) 총수입은 경상성장률 보다 다소 낮은 연평균 7.1% 증가 전망
예산수입은 국세를 중심으로 7.6% 증가,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을 중심으로 6.0% 증가 전망

2. 지출규모 및 재정수지

(1) 총지출

- 1) '06~'10년 중 총지출은 연평균 6.4% 증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 기본수요 충족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2) 재정수지 및 국채 규모

- 1) 통합재정수지는 '06년 공적자금 상황이 종료되어 '07년 이후 흑자 지속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07년 이후 GDP 대비 $\Delta 1\%$ 내외로 안정화될 전망
- 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7년(33.4%) 이후 점차 하락 전망
일반회계 국채는 '06년 9.3조원에서 '10년 7조원대로 감소

3. '06~'10년 자원배분 방향

(1) 기본 방향

- 1) 국민 기본생활보장과 미래사회 대비 분야에 중점 지원
- 2)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민간·시장과의 역할분담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지원 내실화에 중점

(2)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 1) R&D분야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속 투자 확대
- 2) 사회분야는 사회통합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
교육 분야 : 교육복지 확충,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중점
복지 분야 :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비 투자 확대
문화 분야 :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중점

- 3) 경제 분야는 민간역할을 강화하면서 재정투자를 내실화
-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투자재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투자 보완
- 농어촌 분야는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에너지 분

- 야 중점 지원
- 환경 분야는 대기질·수질 등 생활환경 개선 투자에 중점
- 4) 국방 분야는 국방개혁과 복무여건 개선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통일·외교 분야는 남북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등에 중점

(3)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구분	06	07	08	09	10	(조원, %) 연평균
1. R&D	8.9	9.8	10.7	11.6	12.6	9.1
2. 교육	28.8	30.9	33.7	36.4	39.3	8.1
3. 사회복지·보건	56.0	61.8	66.9	72.9	79.4	9.1
4. 수송교통·지역개발	18.4	18.2	18.8	19.3	19.6	1.6
5. 농림·해양수산	15.5	15.9	16.2	16.3	16.5	1.6
6. 산업·중소기업	12.4	12.5	12.4	12.5	12.8	0.7
7. 환경	3.8	4.0	4.3	4.5	4.8	6.2
8. 국방(일반회계)	22.5	24.7	26.9	29.3	31.8	9.0
9. 문화·관광	2.8	2.9	3.0	3.2	3.4	4.9
10. 공공질서·안전	11.0	10.9	11.3	11.8	12.5	3.1
11. 통일·외교	2.5	2.4	2.7	2.9	3.2	6.0
12. 균형발전(균특)	6.3	6.7	7.2	7.7	8.2	6.8

4. 2007년도 예산의 특징

- (1) 복지·국방에 각각 10.4, 9.7% 늘어나 전체 예산의 36%를 배분하고 있으며
- (2)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증가율이 7%대로 경 상증가율보다 높게 배분되어 있고 특히 민 간자본 유치사업이 금년 8조3천억 원에서 9 조9천억 원으로 19.3% 증가하고 있으며

- (3) 성장부문인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0.9%, 정보화 및 통신사업은 2.6%증가로 경상증 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R&D) 금년 8조9천억 원에서 9조8천억 원 으로 10.5% 늘리고 있다.
- 결론적으로 '07년도 예산은 복지와 국방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